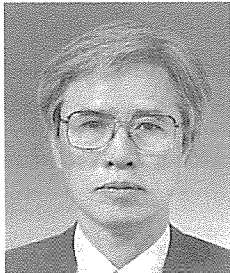


제5회 아시아 분석과학 학술대회

● 일시 : 1999년 5월4일~7일 ● 장소 : 중국 하문대학

제5차 아시아 분석과학 학술대회가 지난 5월 4일부터 나흘동안 중국 하문대학에서 5백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대표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필자가 한국대표로 축사를 했고, 포항공대 박수문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3건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학술대회는 2001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2003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李大云
(연세대 이과대학장)

국제규모의 큰 학술회의가 되었다. 2년 전 지난 4회때는 일본 후쿠오카대학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주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많이 참석한 나라가 되어 이 대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 참가자 수만이 아니라 기조강연, 초청강연,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의 수도 많아 학술적인 위상을 높였다.

한국대표로 38명 참석

그러나 작년 예상치 못했던 IMF가 닥쳐 금년의 5회 Asianalysis는 우리나라의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사실 한국대표로서 본인은 염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대한화학회의 분석화학분과회의 회장 이하 간사들의 노력으로 비록 4회때 같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많게 38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이 오히려 부진하여 우리보다 약간 적은 수로 참가하

여 한국의 열성을 과시했다. 따라서 주최측인 중국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매우 고마워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기조강연 1건(포항공대 박수문교수), 초청강연 3건(광운대 차근식, 포항공대 한중훈, 성균관대 김경례), 구두발표 8건 및 포스터발표 19건을 발표하였다.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학회에 참석할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히 중국은 여행사를 통해 수속도 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편리했다. 그 대신 중국에서 입·출국할 때 단체로 해야하는 약간의 불편은 있었으나 모든 참가자가 단체로 동시에 행동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었다. 이번에 우리는 일광여행사를 통해 단체 비자를 얻고 학회가 끝난 후 하루 관광도 했다. 무엇보다 공항에서까지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여행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행히 우리 일행 중에는 광운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선족 중국학생(최강)이 동행하여 언어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5월3일(월) 오전 11시 김포공항 제2청사에 모여 단체로 출국수속을 마치고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예정대로 정시에 상해 공항에 도착하였고 단체로 입국수속을 마친 후 목적지인 하문(Xiamen)god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하여 약 2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며 일행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다시 하문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하문대학에서 마련한 버스로 약 30분간 하문 시가지를 통과하여 대학에 도착하였다. 하문은 다만 건너편 중국 본토에 있는 항구도시이며 최근 경제특구가 되어 재개발이 한창이었다. 낡은 건물이 있는가

한국, 일본 및 중국이 주축이 되어 매 2년마다 개최되는 Asianalysis가 이번에는 중국 하문(廈門 : Xiamen)에 있는 하문대학에서 지난 5월4~7일까지 열렸다.

아시아 각국에서 약 5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 이 대회는 1985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일 분석화학공동심포지엄(2회는 1987년 일본에서, 3회는 1989년다시 서울에서 열림)과 일-중 및 일-러 분석화학 심포지엄이 확대되어 아시아 전 지역과 호주 및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하면 최신식 호텔, 상가, 아파트가 드문 드문 눈에 띈다. 2~3년 전 이곳에 학회 때문에 왔었다는 교수의 말에 의하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아 재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같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재개발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비슷하게 보였을 것 같다.

하문대학 정문을 들어서자 흰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쓴 학회 현수막이 여기저기 눈에 띠어 우리를 환영하는 정성이 보였다. 조금 복잡은 하였으나 숙박비를 지불하고 대학 내에 있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대학 내 호텔이라 고급은 아니지만 비교적 깨끗하여 첫 인상은 좋았다. 저녁 7시경 우리는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여 알고 있던 중국, 일본 등 분석화학자를 만나 인사를 하고 뷔페식으로 준비된 식사를 하였다. 몇 가지 스프와 만두, 두부요리, 고기류, 기름에 볶은 야채류, 과일 등이 푸짐하게 놓여 있어 중국에서의 첫 식사를 마쳤다. 우리 일행은 학교 후문에 가까운 해변을 걸으며 밤바다 정취를 느끼고 다음날 학회가 아침 7시30분에 하문시청 강당에서 있다하여 대개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갔다. 본인은 개회식에서 축사를 부탁받아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영문축사 원고를 쓰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5월4일) 아침 참가자 모두는 십여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하문시청으로 이동했다. 5백~6백명 들어가는 강당이 학교에는 여의치 않아 시청 강당을 학회 첫날 개회식과 기조강연 장소로 택했다. 대형 현수막이 정면과 뒷면에 있고 앞 좌석에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찾잔이 놓여 있고 단상에 마주



▲ 중국 하문대학에서 열린 아시아 분석화학 학술대회 기념촬영 모습

보는 좌석이 있었다. 그러나 학술대회라 그랬는지 단상에는 대회 조직위원장(Benli Hwang 하문대학 교수/차기 중국화학회장)만이 앉았다. 개회사 후 하문시장의 축사를 여자 관리가 중국말로 낭독하고 옆에 통역이 영어로 낭독하였다.

축사때 중국어로 첫 인사

하문대학의 총장 인사와 일본 대표의 축사에 이어 본인이 대한화학회장의 자격과 한국 대표로 간단한 축사를 하였다. 첫 인사를 즉석에서 배운 중국어(니 자오)로 아침인사를 했더니 박수를 받았다. 다른 나라에 갈 때 공식석상에서 짧은 인사 정도는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은 매우 우호적이며, 좋은 인상을 준다.

개회식이 끝나고 기조강연 순서가 오전과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중간중간 휴식시간에 로비에는 여러 음료수와 과자, 빵이 준비되어 그 수많은 참석자가 먹고 남을 정도로 먹는 것

이 풍성했다. 역시 중국에서는 음식만큼은 일본과 대조적으로 풍성했다. 점심에는 약 4백명이 한번에 수용되는 대형식당에서 약 10가지 요리가 나오는 점심을 먹었다. 워낙 시중드는 여자 종업원이 많아 기다리지 않고 점심을 마칠 수 있어 역시 사람 많은 중국의 특색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그 친절한 모습은 음식맛 이상이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요리의 이름을 말하는데 도무지 알 수는 없어도 웃음으로 답하고 무엇인가 물어보는 말은 눈치로 대답했는데 역시 말이 안 통해 답답하기는 했다.

우리나라의 기조강연은 포항공대 화학과의 박수문교수가 전기화학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다시 버스에 나눠타고 하문시내와 해변도로를 따라 하문시 일주 구경을 차 속에서 했다. 해변가에 조성하고 있는 넓은 도로가 시원하게 트여있고 군데군데 유락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여름이면

피서객이 몰릴 것이 분명하다. 특이한 것은 경찰선도차가 앞에 서서 모든 차를 서거나 비켜서게 하며 길잡이 노릇을 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학회 들쭉날은 10개 분야로 나누어 초청강연과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10개 분야는 분광분석, 전기화학분석, 크로마토그래피와 분리분석, 분자분광분석, 케모메트릭스(chemometrics), 질량분석, 생물학적 분석, 환경분석, 표면분석 및 분석화학 교육, 기타 분석기술이었다. 총 발표건수는 5백90건으로 기초강연 5건, 초청강연을 포함한 구두발표가 1백94건, 포스터가 3백91건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중국 측의 구두발표가 상당수 취소되었거나 발표자가 오지 않아 중간 중간 쉴 수밖에 없는 일이 각 발표장마다 있어 참석자들이 무어라 말은 하지 않았어도 실망했다.

아마도 이런 현상도 최근 급변하는 중국이 겪는 아픔이 아닌가 싶다. 거리가 워낙 멀어 기차로 수십 시간 혹은 며칠 걸리는 실정이며, 또한 재정적 뒷받침 등이 가능해야 하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형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있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학회 셋쨋날도 들쭉날이나 똑같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분야별로 초청강연과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주로 오후에는 포스터발표도 병행하였으므로 자유롭게 포스터발표를 보았다. 역시 구두발표와 같이 포스터도 드문드문 빈 칸이 있었다. 나라마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포스터의 형태나 짜임새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돋보였다. 저녁에는 마지막 행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만찬이 있었다. 보통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식사의 간단한 특별행사 예를 들면 전통무용 혹은 음악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단지 대회장의 감사의 말씀과 우수 포스터상(상패) 수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발표한 19건의 포스터중 4개가 수상하여 한국이 가장 많이 수상하는 기쁨도 있었다.

2003년엔 한국서 개최

만찬 도중 다음의 Asianalysis VI를 개최하는 일본 대표의 초청의 말이 있었다. 사실은 들쭉날 각국 대표자 회의에서 차례로는 한국이었으나 2001년에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합회(IUPAC) 주관의 국제분석과학술회의가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 한 해에 두번씩 분석화학 국제대회를 열기는 곤란하다 하여 다시 일본에서 열기로 정했다. 그래서 한국 대표로 간 본인으로서는 짐을 덜었다. 물론 2003년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국제학회 참석의 또다른 재미는 주최측이 준비하는 관광인데 하문시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항구도시로 중국이 1979년에 설치한 경제특구 4개중에 하나이다. 해변에서 보면 금문도가 멀리 보인다. 경제특구라 그런지 시가지를 보면 현대식 건물이 많고 역시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문의 공항을 보면 새로 초현대식의 규모가 큰 공항 옆에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옛

공항건물이 남아 있어 최근의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참가자 일행은 몇팀으로 나누어 페리를 타고 가깝게 보이는 무량루라는 섬을 구경했다. 해상관광지로 외국풍의 오래된 건물과 식물원, 새만 있는 동물원, 공원, 우리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장터 등 그런 대로 구경할 만한 관광지였다. 안내하는 하문대학생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비록 영어가 서툴지만 애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잠시 생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작은 토끼가 아닌 거대한 몸집의 중국이라는 꼬끼리가 이제 일어서려고 꿈틀거리고 있다. 당장은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 얼마 안가서 경제, 문화, 과학기술까지 위협을 받겠구나 하며 긴장이 되었다. 학술발표 내용에서도 최근 관심있다는 과제들은 비록 아직은 수준이 낮지만 앞다투어 손을 대고 있어 얼마 지나서는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이라 생각됐다. 최근 우리가 경제형편이 어렵다하여 기초과학보다는 기술에만 역점을 두어 기초과학을 하는 많은 대학의 인력이 실망하고 있고, 우수한 개인들의 연구지원은 계속 줄고, 몇몇 개인이나 그룹에만 막대한 연구지원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조급한 정책을 볼 때, 개개인의 창의성을 여유있게 지켜보며 성장하는 중국인의 장기적 안목은 우리에게는 과연 맞지 않는 정책인가 혼란스러웠다. ㉟